

中폐렴, 국내 첫 확진자 발생...“사람간 전파 가능성 있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오늘 오전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해외유입 확진환자(35세 중국인 여성)를 확인, 항공기 동승 승객 및 승무원 등 접촉자 조사 및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 감염증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대책반을 가동해 관리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중국 우한시 폐렴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고 있는 의심환자(유증상자)가 국내에만 3명이 있는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국내에서도 우한시 폐렴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보건당국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폐렴 국

내 첫 확진자인 35세 중국인 여성은 제외한 의심환자는 총 7명이 발생했다. 그중 4명은 인플루엔자(독감) 등 다른 감염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돼 감시를 해제했다. 나머지 의심환자 3명은 판-코로나바이러스(pan-corona virus) 유전자 검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판-코로나바이러스(pan-corona

판-코로나바이러스 검사 진행... 능동감시 대상자 14명

비행기 탑승객 등 추적조사... 첫 확진자 35세 중국여성

virus) 유전자 검사법은 신종을 포함해 모든 종류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폐렴을 의심할 만한 특이사항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보건당국 설명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날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국 사례를 봤을 때 우한 폐렴은 사람 간 전파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국내 확진자는 입국 과정에서 확연히 격리병동으로 이송한 만큼 지역사회 노출은 없었다”고 밝혔다.

중국인 폐렴 확진자는 우한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하루 전인 18일에 열이 나고 오한, 근육통 증의 증상을 겪었다. 이후 지역 병원을 방문해 감기약을 처방받았다.

국가지정임원치료병상이 있는 인천의료원으로 이송된 폐렴 확진자는 중국 내 집단발병 근원지인 화난 해산물시장을 방문하거나 야생동물을 만지지 않은 것으로 당국 역학조사 결과 밝혀졌다. 폐렴 확진자는 항생제 처방 등 일반적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국내외 발생 동향

국외발생연황 (1.20일 기준)

국가	확진환자(명)		
	우한시	베이징	선전
중국	198	2	1
태국	2		
일본	1		

※ 태국, 일본 확진환자는 중국우한시에서 해당국가로 유입된 환자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 (1.20일 기준)

구분	확진 환자	의사 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능동감시 대상자		
			계	격리중	격리 해제	계	감시중	감시 해제
누계 (1.3~20)	1	0	7	3	4	15	14	1

인 격리치료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폐렴 확진자가 우한시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탑승한 비행기의 좌석이 180여개에 달하고, 기

장과 승무원까지 고려하면 많은 접촉자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폐렴 확진자와 대화를 했거나 한 공간에 머문 접촉자 명단을 추가로 확

인 중이다. 국내 능동감시 대상자는 15명이며, 그중 1명은 감시를 해제했다.

향후 접촉자 명단에 오른 사람들은 관할 보건소의 능동감시를 받게 된다. 능동감시는 폐렴 확진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별열 등의 의심증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내 확진자가 입국 단계에서 증상이 확인돼 격리병동으로 이송된 만큼 지역사회 노출과 전파 가능성이 낮다는 게 질병관리본부 설명이다. 하지만 중국에서 사람 간 전파가 이뤄지고 있으며, 확진자 가족과 비행기 옆자리에 앉은 사람 등 밀착 접촉자의 추가 확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중국과 태국, 일본에 이어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폐렴의 원인 병원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다. 이 병원체는 사람과 동물이 동시에 걸릴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 바이러스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동물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종류가 많지만, 현재 까지 사람에게 전파하는 유형은 229E를 포함해 6종이다.

20일 기준으로 중국 내 폐렴 확진자는 201명, 태국과 일본은 각각 2명과 1명이다.

뉴스1

검찰, ‘반인륜적 범죄’ 고유정에 사형 구형...방청객 박수 쏟아져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20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고유정 사건 결심 공판에서 고유정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유정이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앞에서 아들을 죽이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형을 요구했다.

검찰은 또 “참혹하고 무서운 범행으로 무엇을 얻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매우 잔혹하고 극단적인 인명경시 태도를 보이고 법정에서도 오로지 거짓과 변명, 회피만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검찰은 “비록 사형선고는 예의적이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에 대해 형

사적 비난 가능성을 일부라도 감경하는 것은 책임주의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정최고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쏟아졌다.

제주에서는 사형 선고는 물론이고 사형 구형도 흔치 않다.

제주판 살인의 추억이라 불리는 보육교사 살인사건은 1심에서 무혐의로 결론나긴 했으나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이국종, 3년7개월 몸담은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떠난다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인 이국종 교수는 내달 초 센터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

를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 2016년 6월 외

상센터 출범과 함께 센터장직을 3년7개월여 역임했다. 현재 임기는 1여년 남았다.

현 시점에서 센터장 사퇴 결심

에 결정적인 계기에는 외상센터

를 바라보는 아주대병원의 시선과 최근 일파만파 확산된 유희석 아주대의료원장과의 불화 논란인 것으로 좁혀진다.

이 교수는 그동안 세금 300억 원 넘게 들여 지은 외상센터에 연간 운영비로 60억원을 보조하고 있어 지원을 해주지 않는 것은 물론, 병실문제에 대한 아주대병원의 비협동적인 태도를 지적해 왔다.

이 교수는 지난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 당시 석해균 선장과 2017년 북한 귀순병사 오청성을 살려낸 장본인이다.

외상센터와 이 교수는 폐려야 떨 수 없는 관계다. 이 교수를 언급하면서 외상센터를 따로 얘기할 수 없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이 교수가 센터장직을 떠나 평교수로 남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 향후 외상센터 위상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센터장 후임자로 아주대 병원 외상외과과장 겸 부교수인 정경원 교수가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 교수가 아끼는 제자 를 센터장으로 임명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적은 현실인 만큼 병원 층에서 센터장을 직접 임명하지 않을까라는 일각의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 교수의 센터장직 사퇴 발언에 대해 병원 층 관계자는 “이 교수가 센터장직을 내려 놓겠다는 입장은 병원과 관계없이 언론사와 접촉해 밝힌 것이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이 교수의 각종 언론보도에 대해 병원 층의 공식 입장은 없다”면서 “이 교수의 입장에 일일이 대응해 논란을 기증시키기보다는 현재로써 상황을 관망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 건설업(비계 구조물 해체공사업)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수집·운반)
- ▣ 석면해체·제거업



신원건설산업(주)
(자회사) 신원자원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예향로 3230
TEL : 061)333-6832 FAX : 061)334-7701
광주사무실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원도산길 62-4